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18

“우리도 함께 뛰다”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 제4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18일 앞으로 다가왔다. 3·1절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다지는 이번 대회는 전국달리기동호회·기관 단체·시민들의 잇단 참가신청으로 벌써부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올 대회에 참가하는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신나는 세상·행복한 세상
광주의 희망 품고 무한질주

광주희망포럼

“세상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하고 이끌어 갈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희망이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기에 세상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주인되는 광주희망포럼’(이하 광주희망포럼·이사장 최준식 조선대 약대 교수)의 창립 취지다.

광주희망포럼은 제도과 권력, 자본과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변

화하고자 지난해 2천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창립했다. 창립 이후 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을 위해 정치지도자가 가져야 할 리더십, 광주의 미래와 희망이야기라는 주제로 2차례 강연회를 가졌다.

강연회·산행으로 친목도모

첫 강연회는 광주희망포럼 상임고문인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이 강사로 나서 정치 지도자가 가져야 할 리더십으로 도덕적 리더십, 역량적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

을 강조했다. 2차 강연회에서는 전갑길 상임고문(광주 광산구청장)이 광주의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고 토론했다.

강연회와 함께 산행 등 친목도모도 활발하다. 특히 지난 8일 이사회에서 광주일보 주최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적극 참여해 친목도모의 장으로 만들자고 결의, 이번 대회에 100여명의 회원들이 광주의 희망을 품고 질주하게 됐다.

광주희망포럼 부이사장인 유재신 광주시의원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의 정의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그 바탕에서 사회가 건강해야 비로소 인간



지난해 창립한 ‘사람이 주인되는 광주희망포럼’ 회원들이 3·1절 마라톤대회에서 사람과 함께 즐겁고 신나는 세상 만들기에 전력할 것을 다짐하며 파이팅하고 있다.

100여회원 3·1정신으로 완주

이 건강하다고 소개하고 있다”면서 “3·1절 마라톤 대회를 통해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다져야 지역사회와 광주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회원들을 독려했다.

이번 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는 김민종 이사(광주 광산구의원)는 “혼자 앞서서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손을 잡고 모두가 완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종순 이사는 “회원과 회원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로 마라톤의 의미와 함께 어울림과 나눔의 마음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경종 이사(광주 광산구의원)도 “광주희망포럼 모든 회원이 신나는 축제의 장이 돼 친목도 모모하고 건강도 다지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사람과 함께 즐겁고 신나는 세상을 꿈꾸는 광주희망포럼이 3·1정신을 안고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질주하길 기대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30년전통 송원여상 배구팀 해체 “비난”

고교여자배구 명문 송원여상 배구팀은 끝내 해체돼야 하는가.

지난해부터 나뉘던 송원여상 배구팀 해체설이 최근 기정사실화 되면서 호남여자배구의 명가가 허무하게 사라지는데 대한 지역민들의 아쉬움이 지역 학교체육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확대되고 있다.

10일 광주시교육청과 송원여상에 따르면 송원여상 배구팀 7명 중 4명이 타지역 전학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 사실상 팀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송원여상은 지난 9일 시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배구팀이 해체되기까지 오게된 상황을 보고하는 석명서(釋明書)를 제출했다.

송원여상은 이 석명서를 통해 해체 불가 피한 4가지 이유를 밝혔다. 첫째, 선수 4명이 신장이 적어 학부보 희망에 따라 일반 학생으로 전환했다는 것. 둘째, 지역적인

학교측 “선수 부족... 더 이상 팀 운영 어렵다”

체육계 “3년전 적극지원 약속 결국 저버리나”

특성에 따라 우수선수 발굴 및 선수확보에 어렵다는 것. 셋째, 지난 2년간 세터 부족으로 팀 구성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2011년도 입학할 중학교 선수가 없는 상태여서 현재 4명의 선수로는 전국대회를 출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배구협회의 체육회 관계자들은 학교측이 송원여상 팀이 이지경까지 되도록 방치한 송원여상팀과 광주시교육청에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다.

송원여상 고제철 이사장은 팀을 해체하려면 지난 2007년 지역여론의 강력한 반

발에 직면하자 “해체계획을 철회하고 선수육성과 스카우트, 훈련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나 3년도 못되어 약속을 저버린 셈이다.

관계자들은 “지난 30여년간 광주체육 발전에 한 몫을 해온 송원여상 배구팀을 단지 선수 확보 어려움 때문에 해체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면서 “학교측, 구체적으로는 재단이사장의 팀 운영 의지가 없다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송원여상 배구팀은 지난 1978년 창단돼 제숙자·김영숙·김남순·신미숙 등 스타급

국가대표를 배출하고, 전국대회에서 수십 차례 우승하는 등 1980~90년대 여고배구의 명문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성적 저하 현상으로 접어들면서 2007년 처음으로 해체 위기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선수 부족 등 학교체육팀의 어려움은 송원여상배구팀 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팀들이 직면하고 있다는 게 체육계의 중론이다. 광주일보 야구·광주고 농구·수피야고 등 농구 등 오랫동안 광주학교체육을 이끌어 온 팀들도 재정적 어려움 등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주체육의 명예를 위해 어렵게 팀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들 팀처럼 광주체육 위상 제고에 앞장서 온 송원여상 배구팀을 최근의 부진을 이유로 해체한다는 것은 ‘달뿔 삼키고 쓰러 뺏는 처사’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KIA 日 전훈캠프를 가다

미야자키=김여울기자



훈련이 없는 날, 투수 윤석민이 룸메이트 심동섭과 함께 라면을 먹으면서 인터넷 검색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호랑이들 휴식 시간엔 뭘 할까

‘방콕족’ 최희섭 드라마 보는 재미에 푹

‘외출족’ 이용규 바깥 바람으로 氣 충전

휴식시간, 호랑이들은 무엇을 하며 지낼까?

KIA 타이거즈의 전지훈련은 3일 훈련 1일 휴식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얼핏 보면 여유로워 보이는 일정이지만 ‘3일 훈련’이 결코 만만치 않다.

조병현 감독의 지론은 ‘훈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오전 7시30분 아침식사로 하루를 여는 선수단은 해가질 때까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연습장, 실내볼펜을 돌며 공을 던지고 치고, 뛰고 구른다.

지속 같은 3일을 보낸 뒤에야 선수들에게 전국 같은 휴식이 찾아온다.

휴식 전날 저녁에는 야간훈련 대신 회식이 있다. 휴식일 전날이었던 9일 저녁에는 70명이 넘는 선수단이 속소 근처의 고깃집을 찾아 소고기보양식을 즐겼다.

휴식일에는 3일간의 고된 시간을 보낸 탓에 숙소에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는 ‘방콕족’이 많다. 투수 유동훈이 대표적인 ‘방콕족’. ‘방콕족’들에게 필수품은 노트북이다. 고참급 선수들은 다운 받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빅초이’ 최희섭은 드라마 선택여왕 보는 재미에 빠져있다.

젊은 선수들은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밀

리 떨어져 있는 여자친구나 가족들과 화상 채팅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투수 윤석민도 룸메이트인 심동섭과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라면 뽕글이’는 두 선수가 휴식날 즐기는 별미다.

무조건 나가고 보는 ‘외출족’도 있다. 휴식 날만큼은 바깥바람을 쐬며 기분전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용규는 ‘외출족’중 한 명이다. 전지훈련에 없어서는 안 될 볼펜멤버들도 ‘외출족’의 일원이다. 이들은 산책을 하며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다.

로페즈는 볼펜 보조를 맡은 사촌 루이스와 종종 일본 게임장 나들이에 나선다. 한창한 시골이라 특별히 낯설고 없고, 말도 안 통하다 보니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코칭스태프들은 각자 스케줄대로 시간을 보내지만 지난 휴식일에는 단체로 골프장 나들이를 다녀왔다. 선수단 격려자 캠프를 찾은 김조호 단장과 함께 골프장에서 운동을 하며 모처럼의 여유를 즐겼다.

처음으로 코칭스태프와 호흡을 맞춘 스키 모토 투수코치는 이날 프로 못지 않은 골프 실력을 과시하며 KIA 골프계의 새로운 감각으로 떠올랐다는 후문이다.

/wool@kwangju.co.kr



문을 차단하고 그만큼 일본에 남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40세에도 현역으로 뛰고 싶다”는 뜻을 밝힌 임창용은 “계약이 어떻게 풀릴지 알 수 없지만 계속 야구

르트 유니폼을 입고 싶다”며 의리를 보여줄 참이다. 지난해 28세이브를 올리는 등 2년간 61세이브를 수확, 정상급 소방수로 자리를 굳힌 임창용은 요미우리, 한신 등 빅리그 구단으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부활을 노리는 이은영(34)도 지난달 29일 출국해 이틀간 두산 캠프에서 신세를 지는 등 두산 훈련장으로 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골프장 이용객 2,591만명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긴 연인원은 2천600만명에 달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가 회원사 골프장과 전국 6홀 이상 대중골프장을 대상으로 2009년 이용객을 조사한 결과 전국 339개 골프장을 이용한 연인원은 2천591만명으로 2008년(2천398만명)보다 8.0%(193만명) 증가했다.

이는 굳이 운영하는 18홀 이상 체력단련장 4곳과 19홀 미만 군 골프장 24곳을 제외한 수치로 협회는 이를 포함하면 이용객이 200만 명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회원제골프장 193곳을 찾은 이용객이 1천694만명이었고 대중골프장 146곳을 이용한 시민도 897만명에 달했다. 작년 한 해 신규로 승인 받은 골프장은 모두 41곳으로 회원제가 21곳(444홀), 대중제가 20곳(303개홀)이었다.

/연합뉴스

임창용, 日서 계속 뛰고싶다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 수호신 임창용(34)이 미국프로야구에 진출하기보다 일본에서 계속 뛰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닛폰’은 10일 인터넷판에서 오키나와현 우라소에구장에서 전지훈련 중인 임창용이 일본에서 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로 일본 무대 3년째를 맞는 임창용은 일본 야구 규약에 따라 8시즌을 뛰면 FA 자격을 얻는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주포 알렉스 라미레스(36)처럼 외국인이지만 일본 선수와 똑같은 자격을 취득한다.

2007년 시즌 후 야쿠르트와 최장 3년간 계약한 임창용은 계약 만료해인 올해를 앞두고 2년 이상 장기 계약을 제시한 구단의 제안을 뿌리치고 1년 계약에 합의했다.

올해 시즌이 끝나면 야쿠르트를 포함한 어느 팀으로도 이적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신분이나 굳이 일본에서 FA를 얻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한 소

박찬호, 두산 미야자키 캠프 합류

박찬호(37)가 11일부터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사이트 구장에서 전지훈련 중인 두산 베어스 스프링캠프에 합류한다.

지난달 25일부터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 구장에 있는 한화 이글스 캠프에서 페이스를 끌어올린 박찬호는 이를 전 귀국했고 11일 다시 미야자키로 떠났다.

지난 시즌 후 미국프로야구에서 자유계약

선수(FA) 자격을 얻었지만 아직 새 팀을 구하지 못한 박찬호는 공주고 선배인 김경문 두산 감독에게 전화해 합동 훈련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타진했고 김 감독은 흔쾌히 이를 수락했다.

두산 관계자에 따르면 박찬호는 17일까지 두산 선수단과 함께 훈련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계약 소식이 언제 들려오느냐에 따라